

# 필요·상황에 맞춰... 시민 공동체 의식 속 빛 받해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의 포용적 복지정책이 도시 전체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익산시는 필요와 상황에 맞는 익산형 복지정책이 익산시민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빛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 '신속하고 촘촘하게' ... 위기가구 발굴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읍면동장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 책임제'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의 책임자가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는 정책이다. 고독사를 막고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반년 동안 29개 읍면동에서 4,200여 가구를 방문해 기초수급·차상위 등 공적 급여와 사례관리 등 400여건의 공적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 또 복지관과 여러 봉사단 등 우수한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해 6,000여 건의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한층 더 두터운 복지를 지원했다.

시는 또 일상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편의점, 도시가스 검침업체, 공인중개사 협회와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엮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 '수요자 중심으로' ... 맞춤형 복지 제공

시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이로움 나눔공간 △다이로움 밤차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같은 특색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이로움 나눔공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 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료품과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눔공간은 기업과 지역 주민 등 주변 이웃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올해 현재까지 2,730여 가구가 1억3,6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으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있다.

다이로움 밤차는 정기적으로 익산시 곳곳을 돌며 결실 우려가 있는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에 식사를 제공한다. 지난해 밤차는 후원금 1억 1,000만 원과 자원봉사자 1,200명의 도움으로 연간 42회 운영되며 1만 3,000명이 끼니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았다.

밤차는 단순히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자활상품 장터 등 부대 행사를 함께 마련해 작은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자활상품 장터를 통해 기초수급자나



다이로움 나눔공간 전경

### 읍면동장 책임제 추진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 다이로움 나눔공간 등 실질적 맞춤형 복지 제공

### 이웃에 돌봄단·AI 말벗 등 돌봄 서비스 핵심 자리매김

### 재가 의료급여 시범 추진 6개월 이상 관리 대상자 의료비 70% 이상 감소

차상위계층이 생산한 자활상품에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유기농 쌈채와 친환경 비누·천연 방향제 등을,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는 소포제·유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두부와 가족 공예제품을, 자활기업 '실오라기'는 개량 한복과 천연염색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진로 탐색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익산 청소년 중 성적 우수자나 특기 적성·직업기술 우수자 13명이 학원비나 기숙사비, 교재비 등 교육 비용을 월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꾸준한 관리



읍면동장 책임제 성과보고회



문화가 있는 이동발차



의료급여 설명회

시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사례가 단발성이나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기·상황별로 적절하게 생활 안정이나 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이웃에 돌봄단'과 'AI 말벗·케어로봇'은 각각 대면과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웃에 돌봄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리장, 부녀회원 등 157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황을 점검한다. 긴급생계·의료비, 통합사례관리, 행복나눔마켓, 후원 물품 지원 등 서비스 1,054건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AI 말벗·케어 로봇 '다솜이'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13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90%를 상회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화 기능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위기상황을 감지해 신고하는 등 조력자 역할도 톡톡히 해 낸다.

### ▲ 병원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이 밖에도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한 후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나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관리 중인 대상자의 1인당 의료비는 70% 이상 감소해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73%로 나타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시는 4차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뒤늦게 합류했음에도 적극적인 현장 발굴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평가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우수 실적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되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제공과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됐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시민의 도움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고화된 형식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